

일본 여행을 통해 본 한국인의 대일관

일본 여행 애호가를 중심으로

송광은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석사, 한국사회문화 전공
dgs00000@gmail.com

- I. 머리말
 - II. 연구 방법과 연구 참여자
 - III. 대일관
 - IV. 일본인
 - V. 맺음말
-

본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일본 여행과 일본 인식』(2019)의 본문 중 1)일본 여행의 대중화, 2)여행 방식을 제외한 3)여행 이후 대일관 변화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 여행자보다는 한국인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일본 대중문화 소비자 관련 선행 연구만 다루었음을 미리 밝힌다. 인용은 큰따옴표, 강조는 작은따옴표로 표시하였다. 인터뷰 텍스트의 큰따옴표는 참여자의 독백, 작은따옴표는 강조를 의미한다.

I. 머리말

본 연구는 방일 경험이 한국인 일본 여행 애호가들의 대일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둔다. 일본 여행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간접적이고 일방적으로 소비되는 일본 대중문화와 달리 여행은 직접적으로 일본을 경험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쌍방향적인 교류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결을 달리한다. 두 번째, 흥미와 애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방일하는 집단인 일본 여행 애호가들을 통해 일본 여행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적·역사적인 반목과 경제적·문화적인 교류가 난기류처럼 교차하는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 여행 애호가 16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여행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 이후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일본 대중문화를 소비함으로써 일본을 인식해 왔으며, 20년이 지난 지금 여행이라는 미증유의 방식을 통해 일본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는 시각에서 일본 여행을 다룬다.¹ 이 같은 관점에서 선행연구로서 일본 대중문화

1 세계로 나가는 관문인 인천공항에는 밤낮 구분 없이 국경을 넘으려는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주말, 연휴 기간을 활용할 경우 목적지는 자연스레 가까운 이웃 국가로 집중되기 마련이다. 특히 엔화 약세, 가까운 거리, 친숙한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증가한 일본 여행은 2010년대 한국 사회의 새로운 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인 방일 여행객 수는 2014년 276만 명에서 2018년 753만 명으로 4년간 약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기간 한국인 해외 관광객의 일본 방문 비율은 17%에서 26%까지 상승했다. 한편, 2019년에는 그 수치가 19%까지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해외 여행객 5명 중 1명이 옆 나라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발맞추어 일본 여행 관련 도서와 여행의 트렌드화 및 종편채널 등장과 함께 다수의 일본 여행 관련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2020년 1월 기준), 2020. 3.6(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접속일: 2021.1.22).

수용자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이 간접적인 일본 소비 연구라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지만 일본 대중문화 수용자의 대일관은 일본 여행 애호가들의 대일관에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2000년대 이후 김현미와 윤경원, 나미수를 필두로 일본 대중문화 수용자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두 연구는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 사회의 하위문화라는 관점에서 일본 대중문화 인식, 수용 과정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김현미의 연구에서는 일본 대중문화 수용자가 일본의 “정치와 문화는 분리” 된다는 인식 속에서 자신은 여전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는 대목이 등장한다.² 윤경원, 나미수에 따르면 일본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청소년들은 “거리두기”, “분절화”, “분리화” 세 가지 대응 전략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한다.³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김현미의 연구 참여자도 일본과 일본 대중문화를 분리하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본 아이돌 아라시 팬들에게서도 일본과 아이돌 아라시를 분리하는 태도가 관찰된다.⁴ 일본 대중문화 팬들은 대중문화를 향유한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일반인들과 차이점을 지닌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위치하는 이상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이들도 전략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종합하자면, 앞선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 일본과 일본 문화를 분리하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과거에는 일본을 하나로 보는 “총체화”적인 반일 기조가 우세한 것과 달리, 1990년대 들어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2 김현미, 「일본 대중문화의 소비와 ‘팬덤(fandom)’의 형성」, 『한국문화인류학』 36권 1호(2003), 165쪽.

3 윤경원·나미수, 「문화지역화와 미디어 수용자 하위문화: 청소년들의 일본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1호(2005a), 24쪽.

4 三村 光平, 「한국의 일본 아이돌 팬: ‘아라시 카페’를 중심으로 한 일본 대중문화 수용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개별화” 경향이 증가했다는 이지원의 주장과 결을 같이한다. 그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양국의 교류가 일상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 속에서 다양한 국적의 문화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즐기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말한다. 그 결과 “사안을 취급할 때 그 문제 고유의 성격에 따라 대처하는 개별화의 경향, 분야별 특성에 대응하여 분화된 감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⁵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본을 분리하는 인식을 개별화 인식으로 칭하고자 한다.

또한 이지원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과의 접점이 점차 다양해지는 오늘날 한국인의 개별화 인식은 보다 뚜렷해지는 경향을 띠는 것이다. 한편으로 기술 발전은 앞으로 문화상품 및 미디어의 굴절을 거치지 않은 직접적인 만남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을 누비며 관찰하고 교류하는 여행이 양국의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곳에서 출발하며, 일반 한국인 여행자와 결을 달리하는 일본 여행 애호가들의 경험을 통해 일본 여행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들도 개별화 인식 속에서 일본을 여행하는가? 혹은 구분되는 또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직접적인 접촉이 인식 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경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 여행 애호가들이 어떤 형태의 여행을 그려내는지 살펴보기보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일본을 재인식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일본 여행을 분석한다.

근래 들어 여행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방일 한국인은 꾸준히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부실한 상태이며, 특히 일본 여행 연구는 관광 마케팅 연구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5 이지원, 「인터넷 확산 시기의 한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선순환적 교류의 조건」, 『한림일본학』 21호(2012), 121-122쪽.

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본 여행을 해석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에 대한 감정, 사고를 읽고자 하는 시도가 한국학에 있어 ‘한국에게 일본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또 다른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 연구 방법과 연구 참여자

여행 경험은 사회, 사회 구성원, 역사적 경험 등에 의해 형성된 개인의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⁶ 그러므로 양적연구로 밝힐 수 없는 말들을 포착하고자 하는 질적연구가 여행 경험을 읽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심층인터뷰는 예비조사와 참여관찰이 요구되지만⁷, 여행을 통한 참여관찰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연구자가 한 명의 일본 여행 애호가로서 축적해온 경험이 간접적인 참여관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부자 신분은 참여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⁸ 한편으로 이 경우 연구자가 참여자와의 경험을 동일시하거나 해당 분야를 자세히 안다고 믿음으로써 연구의 중립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이를 경계하기 위해 참여자의 이야기를 당연시 여기지 않는 “천진난만”한 태도를 유지하며⁹, 내외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시각을 통해 풍부한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6 Urry, J. & Larsen, J., *The tourist gaze 3.0.*(Los Angeles: SAGE, 2012), p. 17.

7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아르케, 2013), 117-118쪽.

8 인터뷰를 마치기 이전, 연구자는 한 번의 패키지 여행과 다섯 번의 자유 여행으로 일본을 방문했으며 여행지는 다음과 같다. 2008년 도쿄, 하코네. 2015년 오사카, 교토. 2016년 삿포로, 오타루, 오비히로, 구시로, 하코다테. 2018년 야쿠시마, 이부스키, 가고시마, 나가사키, 우레시노, 아리타. 2019년 다카마쓰, 이마바리, 마쓰야마.

9 윤택림(2013), 앞의 책, 65쪽.

하였다. 인터뷰는 질문지를 바탕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가변하는 “비구조화된 단서 제공 인터뷰”로 진행되었다.¹⁰ 인터뷰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의사에 따른 취사선택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데이터를 사전에 범주에 따라 분류한 이후, 인과 관계에 따라 구체화, 분석, 해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¹¹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 관찰을 연구 보조 방법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자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 관련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대상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함이다.¹² Kozinets의 사이트 선정 기준에 따라 카페 <네.일.동(네이버 일본 여행 동호회)>의 전체게시판에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매일 1시간 정도 조망적 관찰을 시행했다.¹³ 일본 여행 커뮤니티 중 최대 규모인 본 카페의 회원들은 여행 정보부터 한일 관계까지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고 있었다. 덕분에 인터뷰 질문 구성뿐만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일본 여행을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일본 여행 애호가는 애호가 관련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해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를 따르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세

10 요헨 글래저·그리트 라우텔, 『전문가 인터뷰와 질적 내용분석』(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44-45쪽.

11 요헨 글래저·그리트 라우텔(2012), 위의 책, 292-304쪽.

12 조영한, 「인터넷과 민속지학적 수용자 연구: 인터넷 에스노그래피의 가능성과 과제」, 『미디어, 젠더&문화』 21호(2012).

13 Kozinets(2010)의 사이트 선정 기준은 다음 다섯 가지이다. “적합성(해당사이트가 자신의 연구 목적 및 연구문제에 적절하고 유용한가?)”, “활동성(해당사이트에서 최근까지도 정기적인 소통 및 교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상호작용성(해당사이트의 구성원들끼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실체성(해당사이트 구성원들이 유의미한 수준을 유지하며 충분히 활동적인가?)”, “데이터 풍부성(해당사이트가 연구에 상세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가?” (김예란, 「디지털 민속지학」, 한국언론학회 편저, 『융합과 통섭』(나남출판, 2012), 473쪽에서 재인용).

이후 자유 일본 여행 경험자이다. 여기서 20세는 보호자의 동행이 요구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참여자 절반 이상이 20세 이전 방일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가족 혹은 수학여행과 같은 수동적인 여행이었다. 그에 따라 단편적인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능동적 여행자 구분은 필수적이다. 두 번째, 5회 이상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번 방일을 시도할수록 다채로운 경험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의 전국일주 여행자가 더욱 많은 것을 체험하였을 수도 있다. 또한 일정한 자금과 시간을 요하는 여행의 특성상 직업과 일상을 포기하고 무작정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5회 이상의 여행 경험을 최소한의 지표로 삼았다. 세 번째, 향후에도 방일 의향이 있는 자이다. 이들은 반복된 여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한다. 실제로 참여자 중 일부는 인터뷰 전후로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앞선 세 가지 특징은 일본 여행 애호가(愛好家)라는 단어와 같이 자신이 일본 여행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임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모집 방법의 경우, 기존의 수용자 연구가 특정 집단의 거주 장소에서 접촉을 시도한 것과 달리 일본 여행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라는 가정하에 일본 여행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대학교 커뮤니티에서도 참여자를 모집했다. 즉, 본 연구는 “기존의 상동적인(homological) 하위문화 정체성을 지녔던 팬 집단과 변별되는, 보다 분화되고 자의식적이며 다양한 스타일들을 보유하는 팬 수용자들을” 의미하는 포스트 팬(post-fans) 연구 모집 방법을 사용했다.¹⁴ 최종적으로 2019년 2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다음 표의 참여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14 Redhead(1997), p. 29(윤경원, 「일본 드라마 수용자의 인터넷 활용과 문화적 실천」, 『한국방송학보』 21권 4호(2007), 147쪽에서 재인용).

표1-인터뷰 참여자 목록

참여자	나이	성별	직업	여행 횟수	인터뷰 시간	모집 방법	비고(여행 외의 일본 체험)
(1) A	26	남	대학생	6회	140분	대학교 커뮤니티	
(2) B	25	남	대학생	6회 이상	120분		교환학생/ 일본 취업 예정
(3) C	24	여	대학생	6회 이상	120분		교환학생
(4) D	30	남	직장인	6회	75분		
(5) E	29	남	직장인	6회	75분		
(6) F	27	남	대학생	10회 이상	145분		워킹홀리데이
(7) G	25	남	대학생	10회 이상	115분		워킹홀리데이
(8) H	25	남	대학생	10회 이상	150분		
(9) J	24	남	대학생	9회	125분		
(10) L	22	여	대학생	6회	145분		
(11) M	32	남	직장인	6회 이상	115분	일본 여행 커뮤니티	유학
(12) N	34	여	프리랜서	10회 이상	140분		교환학생
(13) O	47	남	교수	10회 이상	130분		
(14) P	49	남	개인사업자	30회 이상	300분		
(15) Q	51	여	직장인	7회	120분		
(16) R	47	남	직장인	30회 이상	130분		

Ⅲ. 대일관

1. 개별화 인식

이 장에서는 일본 여행 애호가들의 대일관에 대해 알아본다. 다수의 참여자들에 따르면 개별화 인식은 일본 여행까지 연장된다. 한국인의 정체성과 연관된 개별화 인식은 일본을 끊임없이 양분하는 개별화 시도로 실천된다. 그러나 일본은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여행과

역사의 접점에서 반일감정이 여행자의 마음을 뒤덮는 순간이 바로 그 증거다.

전반적인 한국인의 대일관은 “반일과 친일, 반발과 이끌림, 적의와 경의가 교차하는 양면성ambivalence”¹⁵, 즉 일본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공존’하는 특징을 지닌다.¹⁶ 참여자들에게서도 일본 상품, 대중문화에 따른 호감과 양국의 정치, 역사 문제와 얽힌 반감이 ‘동시적’으로 관찰된다. (C)씨와 (N)씨는 “독도 및 역사 왜곡”, “일제강점기”로 인해 반일감정을 가졌으나 인터넷을 통해 <명탐정 코난>, <세일러문>을 접한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을 계속해서 즐겨보았다. (G)씨는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모습을 통해 일본을 인식했기 때문에 가장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케로로>가 “대단한 우리나라”의 것이 아닌 “나쁜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곧 “콘텐츠 주공급원”인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이상 상반된 일본의 모습들은 중첩을 이루면서도 특성에 따라 개별되어진다.¹⁷ (F)씨는 개별화가 일본 대중문화에서 일본 여행까지 연장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제가 근현대사랑 국사를 선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해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했어요. 문화적으로는 만화가 재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기는 했지만 여행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피치 못하게 예산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 ‘매료’가 많이 되었고 돌아와서 생각했는데, 그때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안 좋아했던 나라인데 여행 가보니까 재미있어서 또 뭔가 싶긴 했었는데요.

15 정대균, 『한국인에게 일본은 무엇인가』(강, 2000), 29쪽.

16 박상현, 『한국인에게 ‘일본’이란 무엇인가』(박문사, 2010).

17 이지원(2012), 앞의 책.

사실상 지금에 와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일본에 있을 때 '한국인의 주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F)

역사 문제로 인해 반일 의식을 가졌던 (F)씨는 재미있는 일본 만화를 “어쩔 수 없이” 보았듯, 다른 해외 여행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본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이후 일본에 “매료”된 (F)씨는 한동안 “혼란”을 경험하지만 지금은 여행과 일본을 “별개의 문제”로 치부한다. 또한 (F)씨의 “한국인의 주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 (J)씨의 “일본 여행을 다니더라도 경계해야 할 것은 경계”, “물들거나 동조하거나 것에 대해서 자제해야 한다”는 말에서 선행연구와 같이 개별화 인식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공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개별화 인식은 실천으로 구체화되기도 하는데, 여행 중 우익 관련 상품과 장소를 불매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여행자들은 ‘예상치 못한 여행과 역사의 접점’에서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낀다. 방문한 신사에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이 놓여있었으며, 예약한 호텔이 우익 기업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을 때의 당혹감. “약탈”로 인해 “우리나라” 유물이 본래의 자리에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튀어나오는 욕설. “강제 징용”은 삭제된 채 “위대한 유산”으로만 그려진 군함도 투어 경험. 이처럼 참여자들은 “한국 점령” 대신 “도쿄 대공습”만 언급하는 오사카 박물관 혹은 “객관적으로 자기네가 잘못했던 것과 피해 본 것을” 명시하지 않고 “원폭이 터져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서 반일 감정을 경험한다.¹⁸

18 박물관은 일본인에게 있어 교과서의 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김상준, 「기억의 정치학: 야스쿠니 vs. 히로시마」, 『한국정치학보』 39권 5호(2005), 218쪽), 한국인에게 있어 역사 왜곡을 목격할 수 있는 현장이며 이 장소에서 상반된 양국의 기억은 충돌한다.

[히로시마 원폭 돔 사진을 보여주며] 희생자 위령비를 되게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위령비에서 불 같은 것도 올라오기는 하는데, 평화의 종? 평화의 종을 세워놨는데, 말로는 좋은데 니들이 이것을 왜 세워놓았냐 했거든요. [...]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 자기 피해밖에 생각 안 하나? 일부러 박물관 쪽에서 감춰놓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이 여행과 역사의 교차로를 건넌 참여자들의 경험이 기존의 개별화 인식과 달리 일본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일본 펜 <하이테크>의 제조 회사가 우익 계열의 미쓰비시와 회사명만 같을 뿐 다른 회사임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펜을 계속해서 사용했다는 (J)씨와 (A)씨의 경험도 일본 상품과 우익 기업의 결부 가능성 및 개별화 실천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개별화 인식과 달리 일본의 상품/문화는 역사/정치와 분리되지 않는 상호복합적인 관계를 지닌다. 이에 대해 (A)씨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두 개를 엮어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 ‘어떻게든 분리’해 보려고 했던 것 같다”며 개별화 시도에 의문을 던진다. 한편 이처럼 개별화를 의심하는 참여자는 (A)씨뿐만이 아니다. 다음 장에서 개별화 인식을 비판하는 다른 대일관을 지닌 참여자들을 만나보도록 하자.

2. 변증적 인식

이 장은 개별화 인식과 구분되는 변증적 인식을 가진 참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변증적 인식 참여자들은 개별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와 역사를 비난하는 동시에 일본을 소비하는 한국인에게서 모순을 느낀다. 이들은 이 모순을 통해 개별화를 탐구하며 자기반성이

동반된 변증적 인식을 도출시킨다. 변증적 인식 참여자들은 일본 여행이 대일관 변화의 바탕이 되었음을 언급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일본 대중문화 수용자와 같이 주변인에게 일본 여행이 취미임을 애써 밝히지 않는다. 가족들도 이들을 이해하지 못함은 마찬가지이다. 반복적인 방일 시도는 다른 한국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은 과시되지 못한 채 억압된다. 한편 몇몇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일본 여행을 지적하는 동시에 일본 상품을 소비하는 한국인의 태도가 “무의식”에 기반한 개별화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L)씨는 일본의 문화와 역사가 접하지 않는 부분을 소비할 때 “이거(문화)는 나쁜 게 아닌데”라는 생각과 함께 개별화 인식이 시작되며, 더 나아가 본인을 “객관적”인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는 개별화 인식에 관한 소고를 들려준다.

도쿄 좋대요. 간사이 좋대요. 교토 풍경 되게 좋대요. 일본은 싫대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한국에서 말하는 일본은 무엇인가?” 뭔가 일본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 같은데…… 왜 그 시선이…… 일본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기저에 깔려 있어서 좋아한다고 인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 무의식을 의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무의식적인 거부죠. “아니야, 싫어.” 그 무의식 속에서 인정하면 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L)

(Q)씨는 여행을 반대하는 부모님이 기념품으로 사다드린 코끼리 물병에 대해 “보온병은 그게 최고야”라고 말할 때 “인간은 모순의 동물”이라는 생각을 떠올린다. (H)씨는 일본이라는 단어만 언급해도 반일 감정을 내비치

는 한국인의 많은 수가 일본을 방문했다는 사실에 이질감을 느꼈다며, “청바지를 입고, 오레오와 맥도날드를 먹고 코카콜라를 마시는 우리(한국인들)가 왜 일본 문화만큼은 거절해야 하는지 의문을 던진다.”¹⁹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면모를 보이는 그는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에 따른 “전면적인 부정”은 결국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기혐오”로 귀결된다고 하며, 문화 혼종성(cultural hybridity)을 그 이유로 든다.

우리(한국) 문화 깊숙한 곳곳에 일본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없잖아요. 저는 전면적인 부정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나잖아요?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문화가 미국에서 온 문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에서, 일본에서 온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그게 지금의 나잖아요? “왜 굳이 나를 버려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요. (H)

페터 V. 지마에 따르면 개별화 인식을 가진 참여자들은 양가적, 일본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은 변증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전자는 친일과 반일이라는 두 개의 인식이 나뉘어 존재하지만 후자는 일본을 보다 복잡다단하게 바라본다. 또한 페터 V. 지마는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제약받은 우연적 구성물”임을 직시하는 자기반성적 태도가 전제될 때, 달리 말하자면 한국의 특수성을 내세우기보다 의문을 제기하며 한 걸음 물러서 성찰의 기회를 가질 때 양극단의 이야기가 결합됨으로써 진정한 변증적 대화가 시작된다고 주장한다.²⁰ (H)씨와 (O)씨에게서 그가

19 박상현은 미국화에 대한 비판은 실종된 채 일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만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일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강력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박상현(2010), 앞의 책, 162쪽.

20 페터 V. 지마, 『이데올로기와 이론: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을 위하여』(문학과지성사, 1996), 592쪽.

언급한 자기반성이 관찰된다.

우리 동포라고 말만할 게 아니라, 이런 분들에 대한 해결 없이 우리의 청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살고 센 나라라고 하더라도 양심의 털 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했다가는 “저 천하의 나쁜 놈, 저 천하의 매국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H)

(H)씨는 국경을 넘으며 국경 사이에 위치한 자이니치 코리안 세 사람을 조우함으로써 성찰의 기회를 가졌다. 이후 그들에 대해 공부한 (H)씨는 “고려인이라든가 일본에 계신 조선적,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 베트남에 있는 라이따이한”과 같이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민호는 한국인들에게 “역사=왜 조선은 그때 무능했는가?”가 아닌 “역사=일제의 만행”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본다.²¹ 그러나 (O)씨는 반복적으로 방일함에 따라 과거 일본의 침략이 한국의 국력이 약해서인데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 보니까 자꾸 (일본 탓으로) 돌”린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일본이 본질적으로 악하기보다 모두가 보편적으로 악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베트남 전쟁 파병을 그 예로 든다. “우리나라도 베트남한테 한 것 보면 그것부터 빨리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 왜 우리가 한 것은 아무 소리 안 하는지.” 이들은 모순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을 생각함으로써 모순을 지양한다는 마슈레의 말처럼 한국의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은 채 자기반성을 행한다.²² 일본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한다는 (O)씨는 “애증”이라는 단어로 자신

21 유민호, 『일본 내면 풍경: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르고, 일본은 한국을 너무 잘 안다』(살림, 2014), 245쪽.

22 Macherey(1979), pp. 253-254(페터 V. 지마(1996), 앞의 책, 570쪽에서 재인용).

의 변증적 대일관을 설명한다.

옛날에는 교통이 안 발달해서 우리가 전수해준 것도 많고, 당하기도 많이 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팔자? 숙명? 그런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미묘한……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님도 약간 애증이 있잖아요.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조금 싫은 것도 있고, 배우자도 그렇고, 자식도 애증의 관계고 제가 배웠던 스승님에게도 애증이 있어요. 일본도 저는 그렇게 봐요. 문화와 역사를 분리할 수가 없죠, 어차피 그것은 하나인데. 애증이라는 관계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한다. ‘용서’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고 정한론을 펴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가는 거지. (O)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 100명 중 90명은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이쁜 것 보러가고 사진 이쁘게 찍으러 가는 것일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이게 현실이죠. […]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동소이가 중요한 것이니까요[웃음]. (H)

변증적 인식 참여자들은 일본 여행이 대일관 전환의 기반을 제공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모든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건대, 변증적 인식에는 어떠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O)씨가 이야기하듯, 반복되는 여행을 통해 사유의 기회를 제공받은 여행자의 부단한 사색이지 않을까? 여기서 산티아고 순례자들의 순례 이후 변화를 추적한 인류학자 낸시 프레이의 문장이 겹쳐진다. “어떤 식으로든 변하려면 순례자 본인이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 순례가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지는 않는다.”²³ 한편, 직접 경험하였기에 한 차례의 여행

23 낸시 루이즈 프레이, 『(인류학자가 들려주는) 산티아고 순례 이야기: 순례는 사람

시도가 기존 대일관 균열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여행 전에는 일본 문화를 일절 즐기지 않았다는 (Q)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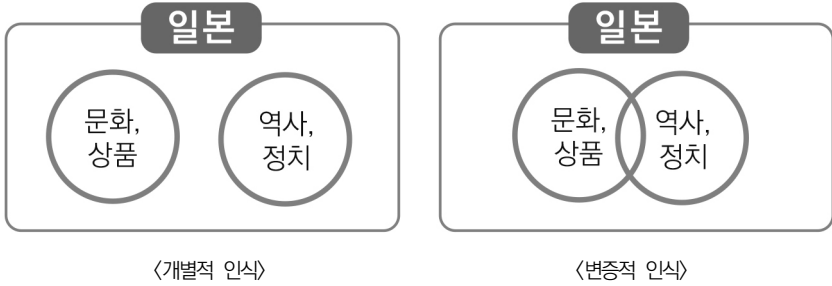
여행의 '경험'이 없었다면 못 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일본이라는 데를 아예 접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틀을 깐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본인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도 깐으면 좋겠고 제가 일본에서 느낀 모든 게 좋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저도 그런 틀을 깨고 싶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 아빠부터. 제가 직접 부딪쳐 보니까 시야를 조금만 넓게 가지면…… (Q)

한국 사회에는 가지 않고 “저기도 볼 거 없을 거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안 가봤으니까 가보고 욕을 하라고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 욕을 해야지. 경험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측은 해도 되죠. 그것은 본인의 자유인데, 단언은 위험한 것이죠. 추측과 단언은 다른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단언을 하면서 “이것은 추측 중 하나일 뿐이야, 가설 중 하나일 뿐이야”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아닌데. (L)

지금까지 의논되어 온 개별화 인식과 변증적 인식의 도식을 그리자면 다음과 같다. 변증적 인식 참여자들은 여행이 사유를 가능케 했음을 이야기한다. 또한 참여자들에 따르면 여행이라는 직접적인 체험은 일본의 일상을 포함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 중 일본인은 여행자와 상호 교류를 맺는 존재이며, 다음 장은 참여자들과 이들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이다.

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황소걸음, 2018), 334쪽.

24 변증적 인식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참여자 (O)씨와 (Q)씨는 여행 이전 일본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일본 여행이 유행하던 시기 처음 일본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여행이 대일관 변화의 트리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IV. 일본인

이 장은 표면적인 만남부터 친밀한 지인까지 다양한 일본인들과의 조우 경험을 다룬다. 개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과 일본의 이미지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양국의 역사는 그 중심에 서있다. 참여자들은 일본인과의 역사적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의 역사교육 정치화를 알아차리고, 축적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을 재정의해 본다.

몇몇 참여자들은 ‘일본’ 이미지 변화에 대한 물음에 혼동한 나머지 ‘일본인’ 이미지가 변화했음을 언급한다. 하지만 개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인의 이미지가 일본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답변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대중문화에 재현된 일본인의 “과잉 친절”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Q)씨. 그가 호텔과 교통편을 해결하지 못하여 당황하고 있었을 때 선뜻 손을 내민 것도 다름 아닌 일본인의 친절함이었다. 사실 (Q)씨는 젊은 일본인들에게 회롱을 당하거나 점원에게 원인불명의 비웃음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친절함과 따듯함이 더 컸기 때문에 또 간다”고 말한다. “집사람은 베푸의 료칸이 너무 좋았다. 주인아줌마가

너무 좋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 아줌마가 한국어를 배우러 다녀가지고, 신나가지고 한국말로 이야기하려고”라는 (P)씨를 포함한 참여자들에게 있어 “회색”의 일본은 마주친 일본인들에 의해 덧칠되어진다.

그러나 일본인의 이미지가 일본으로 확산되듯, 역으로 일본의 이미지가 일본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국가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양국민은 한일관계사로 인해 불완전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디즈니랜드를 갔다가 도쿄역에 도착해서 밖에 나왔을 때 나하고 집사람이 충격을 먹었어요. 도쿄역 앞에 휘날리는 히노마루, 일장기. 외국이지만 피부색 비슷하고 먹는 게 편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돌아다니다가 그 국기를 보는 순간 “아, 여기 일본이지”하는 충격을 받았어요. [...] 일본이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불행한 근대사를 갖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피해의식 비슷하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조센징 몰러가라고 나한테 떠들지 않을까, ‘은연중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국이어서 말이 안 통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듯이 일본이 우리를 싫어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잊고 있다가 일장기를 보고 “아, 여기가 일본이구나.” 그것을 느낀 거죠. (R)

모든 참여자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양국의 과거 식민지-피식민지의 관계가 중추를 이루는 집단 기억을 공유한다. 실제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위계에 의해 생성된 “피해의식”은 “막연한 불안감”이 되어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 이는 식민지 경험이 없더라도 국가 이념으로 채택된 반일주의가 한국인의 사고나 감정, 행동양식에 정착되었다는 정대균의 주장으로 설명된다.²⁵ 일본에 거주하셨던 조부모님들의 다양한 경험을 듣고

25 정대균(1995)(고하리 스스무, 『한국과 한국인: 일본의 사회학자가 바라본』(이지북,

자란 20대 (F)씨는 일본인과 대면할 경우 “한국인이라서 싫어하”거나 “아래로 보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만난 일본인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완전히 오픈해서 이야기 하기는 힘든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다. 독립 운동가 집안에서 자란 (N)씨는 일본인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변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반일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낯선 일본인과의 만남은 어렵다. 그녀는 반복된 여행을 통해 “진짜 친한 사이”가 된 일본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외증조부가 (일본인에게) 그렇게 맞아 죽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니?”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すみません(죄송합니다)”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안해할 게 아니야. 아베가 나한테 그러면 모를까.” [...] [연구자: 그러면 일본인 친구들도 계시는데, 한국이랑 일본이 친해지길 바라세요? 친해지길 바라지. 근데 아베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조건이 안 맞는데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해결이 안 되고서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먼저 “우리(일본)가 나쁘고 아베가 나쁘다” 이야기하면 우리(한국)도 괜찮은데, 제 친구들도 정치적으로 자기네 나라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N)

국경을 넘는 유대관계는 언제나 위태롭다. 참여자들은 일본인 친구들과 독도와 다케시마[竹島], 동해와 니혼카이[日本海] 같은 주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 “말을 안 꺼내는 게 서로의 배려이지 않을까”, “오래 이야기를 끌고 싶지 않아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다는 (G)씨의 말처럼 이들은 양국의 문제가 친구와의 관계에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다. 결국 이들의 한일 관계는 “정치와 역사는 배제”된 채 유지된다.

2001), 148쪽에서 재인용).

예전에 식당에 있는데 위안부 관련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때 암묵적인 침묵이 흐르더라고[웃음. [...]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정치 이야기 나오면 우리끼리 조용해지고..... 위안부는 (우리)와 상관 없으니까, 뭐 약간 그런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N)

양국의 문제에 관해 (G)씨는 “너희는 알아야 한다는 말이야”라는 한국인과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라는 일본인의 주장이 되풀이됨을 언급한다. (O)씨는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서 한일 펜팔 및 부부의 경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급을 아끼거나 “결국에 너는 일본인이야”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이 담긴 글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하며, 그 모습이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다고 표현한다. 실제로 (P)씨는 일본인과 결혼한 친누나가 신혼 초에는 양국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지만 계속 다툼이 일었고, 결국 “금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지만 친구는 완전한 타인이 아니다. 이 관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 번 서로의 속내를 꺼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던 무렵 일본인 친구와 신오쿠보에서 치맥을 하던 (B)씨는 ‘취한 듯’한 일본인 친구의 제안에 의해 양국의 문제를 논하게 되었다. 대화 끝에 느낀 점은 서로의 이야기가 “약간 다르다”는 것이었다. 친구의 이야기에는 맞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했다. 후자는 오히려 친구가 “모르는” 정보에 가까웠다. “(양국 모두) 자기들이 유리하게 쓰는 것 같다”,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B)씨를 포함하여 일본인과 대화를 나눈 참여자들은 역사교과서의 서술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 물음의 끝은 역사교육의 정치화와 맞닿아 있다.²⁶

26 신주백,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일본에 대한 선망과 경멸 사이에서」, 『황해문화』 제48호(2005); 과거의 수많은 비공식적인 기억 중 국가로부터 인정받

예를 들어, 역사교과서의 한일관계사는 “한국은 고대에 일본에 문화를 전해 주었으나,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이나 근대 제국주의 일본의 한국병탄과 같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로 압축된다.²⁷ 연구자도 참여자들에게 위와 같이 한일관계사를 설명했고, 이에 대한 모든 이들의 동의는 역사교육 정치화의 유효성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역사교과서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을 강조한 채 서술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며, 그 결과 (R)씨를 포함한 한국인에게 “쪽발이들, 우리가 문화를 전수해줬는데 형님들을 몰라봐?…… 말로 못하는 우월감”을 선사해 준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관점과 지식도 영향을 미치는데, 정식적인 일본사 교수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지식이 부재한 공간을 자신의 반일 감정으로 메우기 때문이다.²⁸ 교사와 학생의 뒤엉킨 “감정(emotion)은 역사를 만들고 집단 정체성을 길러내는데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²⁹ (L)씨는 한일관계사를 “초등학교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배우고 심지어 1910년대부터 대부분 역사 선생님들이 열변을 토하면서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은 “배웠던 역사를 다른 이면에서” 보게 하는 경험들을 통해 호명된 국민에서 이탈할 추동력을 얻는다. 가령, (L)씨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비교를 통해 역사 서술의 다름을 발견하였거나 일본 관광지의 영어 설명문에서 뉘앙스 차이를 깨달은 경험들이 이에 해당된다. 역사를

은 기억만이 재편성되어 공식적인 역사가 되었으며(김인화·김명섭, 「기억의 국제 정치학: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동북아시아」, 『사회과학논집』 38권 1호(2007), 68쪽), 역사교과서는 공식적인 역사를 국민의 집단기억으로 공유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였다(황영주 「집단 기억과 감정의 공간으로서 사회교과서」, 『21세기 정치학 회보』 제29집 2호(2017), 140쪽).

- 27 김은숙, 「중,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서술 내용 검토」, 『역사교육』 74호(2000), 237쪽.
 28 허신혜, 「한일관계사 수업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의 요소와 성격」, 『한국역사 교육학회』 11호(2010).
 29 황영주(2017), 앞의 책, 141쪽.

뒤집어보는 여행자는 “절대 악”으로 묘사되던 일본을 재정의해 본다.

정말 부정적인 게 많은 나라고, 근데 가보면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본을 다시 찾는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쁜 놈이고 처 죽일 놈이지만 저쪽(일본)에서 서술은 다르잖아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한 상황에서 한쪽에 편향된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 편향된 입장에서 본 것만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항상 들기는 해요. [...] “우리가 그 역사를 굉장히 많이 편향된 방법으로 배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전체로 보고 그계 전부라고 믿지만 아닌 일부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해서. (I)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한국에 문화를 전파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충(耳塚)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옥일기를 어렵פות이 자위대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는 일본인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역사교육의 정치화를 깨달은 여행자는 일본 정부의 전략도 간파한다. (P)씨는 일본인들의 우익적인 사고의 출처가 일본의 교육임을 꼬집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육 때문에 상식으로 알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 무서운 게 이런 거라는 걸…… Pink Floyd라는 그룹 알아요? 옛날 그룹인데 <Another Brick in the Wall>이라고 해서 또 다른 벽을 깨야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애들한테 주입 교육을 시키고 다 주입받고 애 얼굴이 점점 돼지 모양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갈아, 갈아서 사료의 재료가 되게끔. 풍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화시키는 게 사람이 먹으려고 사람을 키운다는 개념으로……. 마지막에는 이것을 깨고 일어나야 한다.³⁰ (P)

30 Pink Floyd는 노래 <Another Brick in the Wall>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통제하고 세뇌하는 교육을 비판한다. 또한 사람들이 스스로 사유하는 주체가 되기를 희망하

유민호는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우기고 야스쿠니에 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렇게 엉망으로 나오니까”와 같이 일본에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일 감정이 그동안 한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만병통치약”이었음을 지적한다.³¹ 그러나 이 만병통치약에는 미디어와 역사교과서 같은 내부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이 따른다. 하지만 일본 여행 애호가들은 일본인과 양국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집단의 논리에서 벗어나 주체가 될 기회를 가진다. 의견 충돌은 상대방이 타인이 아닌 친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신을 성찰하고 차이의 근원을 탐색하게 하며, 서로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앞으로도 일본 여행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누나가 있으니까 마누라도 온천 좋아하고 나도 여행 좋아하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매스미디어에서 강요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 기회는 극히 드물겠지만. 나는 한국에서 이리이러하다고 생각했는데, 애네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네? 기회가 돼서 일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더니 우리랑 생각했던 게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네.’ 그럼 애네랑 내가 왜 다를까? 이런 생각을 갖게끔. 누군가가 어디선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좀 깨우친다든지. 그래야지만 언론에 선동당하고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논리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 좋겠다! (P)

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벽을 이루는 수많은 벽돌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데이비드 데트머 저, 『벽 속의 많은 벽돌 가운데 하나인 삶』, 조지 A. 라이시 외, 『광기와 소외의 음악』(생각의 힘, 2018).

31 유민호, 『일본직설: 일본의 오늘에서 내일의 한국을 읽다』(정한책방, 2016), 311-313쪽.

지명관은 한국인 연구자들이 일본 유학을 통해 시공간적으로 일본에 위치했을 뿐, 일반 시민과의 교제 경험 없이 일본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이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이야기한바 있다.³² 일본 여행 애호가들은 여행 중 인연을 맺은 일본인을 불통의 상대로 재단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공감대 형성을 시도한다. 이는 국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 즉 아래로부터 양국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 여행은 양국의 쌍방향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의 국경넘기이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직접적인 일본 체험이 증가한 배경 속에서 일본 대중문화 수용자들에게서 나타난 대일관이 일본 여행 애호가들에게서도 반복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본 대중문화 수용자들은 일본 문화와 일본을 분리하는 개별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개별화 인식을 가진 일본 여행 애호가도 존재하지만, 일본을 나눠 보지 않는 참여자들도 관찰된다. 이들의 목소리를 빌림으로써 일본 여행이 대일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증거로 일본을 복잡다단하게 바라보는 변증적 인식을 포착했다. 또한 일본인과 한일관계사에 대해 의견을 나눔으로써 국가의 논리에서 벗어나 일본을 재정의하는 주체자로서의 변모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변증적 인식을 가졌거나 일본인과 양국의 문제에 관해 대화를 시도하는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일본을 이해하는

32 지명관, 『한국과 한국인-일본과의 만남을 통하여』(소화, 2004), 47-48쪽.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일본 여행이 한국 사회에서 주장되어온 친일, 반일도 아닌 '지일'을 실천하는 존재의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 결과가 앞으로 양국의 직접 교류 관련 연구들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넷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창구의 증가, 과거 한국 사회에 팽배했던 반일 이데올로기가 다소 견고하고 있는 오늘날 시대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포스트 팬 연구 모집 방법으로 인해 공통된 집단임에도 대일관의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좀 더 균질적인 참여자들을 모집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는 한국 사회에서 비가시화된 존재를 드러내는 적절한 방법이기도 하다. 설명하자면,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논장(論場)은 이분법적으로 반일과 친일의 구도로 구성됨으로써 주체적인 사고의 가능성과 장소를 부재시켜 왔다.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쌓아두었던 일본에 대한 생각을 배출하는 참여자들의 모습도 그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인식을 찾고자 하는 작업은 구조의 언저리에서 침묵해오던 파편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얻는 것 아닐까?

마지막으로 본 글 <Ⅲ.1 개별화 인식>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자. 일본을 역사적인 이유로 싫어했던 (F)씨가 일본 여행에 매료된 후 느꼈다는 '혼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만의 경험이었을까?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케로로>가 나쁜 일본 것임을 알았을 때 (G)씨가 받은 '충격', 일본을 어떻게든 양분하려는 개별화 시도에 대한 (A)씨의 '의문'도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 이후 (F)씨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은 일본과 일본 여행을 별개의 문제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만약 한국 사회에 일본에 대한 논장이 다중적으로 펼쳐져 있었다면, 그는 개별화 인식이 아닌 또 다른 가능성을 추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필자는 (F)씨가 느낀 '혼란'이 반일과 친일의 경계선(in-between)을 넘나드

는 진자운동이자 새로운 세계였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연구자의 소임은 도미야마 이치로가 말했듯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경계를 선에서 또 다른 장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³³

33 도미야마 이치로, 『유착의 사상: '오키나와 문제'의 계보학과 새로운 사유의 방법』 (글항아리, 2015).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하리 스스무 저, 고영욱 역, 『한국과 한국인: 일본의 사회학자가 바라본』. 이지북, 2001.
- 김예란, 「디지털 민속지학」, 한국언론학회 편저, 『융합과 통섭』. 나남출판, 2012.
- 낸시 루이즈 프레이 저, 강대훈 역, 『(인류학자가 들려주는) 산티아고 순례 이야기: 순례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황소걸음, 2018.
- 데이비드 데트머, 「벽 속의 많은 벽돌 가운데 하나인 삶」, 조지 A. 라이시 외 저, 이경준 역, 『광기와 소외의 음악』. 생각의힘, 2018.
- 도미야마 이치로 저, 심정명 역, 『유착의 사상: '오키나와 문제'의 계보학과 새로운 사유의 방법』. 글항아리, 2015.
- 박상현, 『한국인에게 '일본'이란 무엇인가』. 박문사, 2010.
- 요한 글래저·그리트 라우텔 저, 우상수·정수정 역, 『전문가 인터뷰와 질적 내용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유민호, 『일본 내면 풍경: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르고, 일본은 한국을 너무 잘 안다』. 살림, 2014.
- _____, 『일본직설: 일본의 오늘에서 내일의 한국을 읽다』. 정한책방, 2016.
-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 아르케, 2013.
- 정대균 저, 이경덕 역, 『한국인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강, 2000.
- 지명관, 『한국과 한국인-일본과의 만남을 통하여』. 소화, 2004.
- 페터 V. 지마 저, 허창훈·김태환 역, 『이데올로기와 이론: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96.

Urry, J. & Larsen, J., *The tourist gaze 3.0*. Los Angeles: SAGE, 2012.

2. 논문

- 김상준, 「기억의 정치학: 야스쿠니 vs. 히로시마」. 『한국정치학회보』 39권 5호, 2005, 215-236쪽.
- 김은숙, 「중,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서술 내용 검토」. 『역사교육』 74호, 2000, 235-272쪽.

- 김인화·김명섭, 「기억의 국제정치학: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동북아시아」. 『사회과학논집』 38권 1호, 2007, 63-85쪽.
- 김현미, 「일본 대중문화의 소비와 '팬덤(fandom)'의 형성」. 『한국문화인류학』 36권 1호, 2003, 149-186쪽.
- 신주백,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일본에 대한 선망과 경멸 사이에서」. 『황해문화』 제48호, 2005, 125-139쪽.
- 윤경원, 「일본 드라마 수용자의 인터넷 활용과 문화적 실천」. 『한국방송학보』 21권 4호, 2007, 141-175쪽.
- 윤경원·나미수, 「문화지역화와 미디어 수용자 하위문화: 청소년들의 일본대중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1호, 2005a, 5-28쪽.
- 이지원, 「인터넷 확산 시기의 한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선순환적 교류의 조건」. 『한립일본학』 21호, 2012, 121-153쪽.
- 조영한, 「인터넷과 민속지학적 수용자 연구: 인터넷 에스노그래피의 가능성과 과제」. 『미디어, 젠더&문화』 21호, 2012, 101-134쪽.
- 허신혜, 「한일관계사 수업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의 요소와 성격」. 『한국역사교육학회』 11호, 2010, 185-212쪽.
- 황영주, 「집단 기억과 감정의 공간으로서 사회교과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9집 2호, 2017, 137-164쪽.
- 三村 光平, 「한국의 일본 아이돌 팬: '아라시 카페'를 중심으로 한 일본 대중문화 수용자 연구」. 2012,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사이트

- 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2020년 1월 기준), 2020.3.6.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profit/board/view.kto?id=441058&isNotice=false&instanceId=294&rnum=40, 접속일: 2021. 1.22).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0년대 들어 증가한 일본 여행을 직접적인 체험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일본과의 직접 접촉이 대일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다수의 한국인이 간접적으로 일본 대중문화 및 상품을 통해 일본을 소비하고 인식했다는 점에서, 일본 여행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결을 지닌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로서 일본 대중문화 수용자 연구와 일본 여행 애호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일본 여행의 의미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참여자가 여행에 따른 일본에 대한 사유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선행연구와 다른 대일관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행 과정 중 만난 일본인과 한일관계사에 대해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일본을 재정의하는 주체자로서의 변모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일본을 이해한다는 이들의 태도는 직접 교류가 증가할 양국의 미래에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마케팅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일본 여행 연구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투고일 2021. 3. 15.

심사일 2021. 3. 16.

게재 확정일 2021. 8. 6.

주제어(keyword) 일본 여행(Travel to Japan), 대일관(The Korean View of Japan), 개별화 인식(Dichotomous Perception), 변증적 인식(Dialectical Perception), 일본인(Japanese People)

Abstract

The Korean View of Japan Through Travel to Japan: Focused on Enthusiasts of Travel to Japan

Kwang-Eun Song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shift in the Korean view of Japan in the context of the rise of direct experience through travel to Japan in the 2010s. It is an emerging flow, considering that Koreans have not only consumed Japanese pop culture and products but also, consequently, have indirectly perceived Japan through them for many decades.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analyzed by drawing upon in-depth interviews of enthusiasts of travel to Japan, and literature reviews on Koreans consuming Japanese popular culture. Over half of the interviewees still have an existing perception on Japan; others have a resulting change in perspective brought about by the willingness to take advantage of travel opportunities. Additionally, travels open possibilities to conversations with Japanese people regarding both countries' history. It leads them to refine Japan by themselves, not following the method by the Korean government. Conclusions that they understand Japan will provide another implication to more increasing direct interactions between both countries.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studied travel to Japan in a cultural way, as current information on the subject is limited in the domain of marketing.